

광주은행 자금 역외 유출 심각

JB금융, 지역민들에 이자 장사 타 지역으로 사업장 확대 골몰 노조 "전산센터 전북 이전 반대"

광주은행 지역 자원에 대한 역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이자 장사를 해 타 지역 사업장을 늘리거나 확충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광주은행의 영업 활동을 통해 거주민들이 JB금융그룹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점차 광주·전남 지역보다는 JB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연수원인 정읍 '아우름캠퍼스', 전북 전주 '전산센터' 등의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급기야 광주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되어야 할 광주은행 자금이 역외 유출되는 것 뿐 아니라 전산센터 통합에 이어 전북은행으로의 원뱅크(One Bank) 통합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은행'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27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전날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은행이 얻은 이익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지는 것보다 JB금융지주의 과도한 주주배당 및 주요 부대시설의 타 지역 신축 등으로 역외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최근 5년 간 대표적 역외유출 정책과 자금 유출 사례로, 광주·전북은행 통합 전산센터 전주 구축 결정과 광주은행에 대한 높은 주주배당 비율 등을 꼽았다.

박만 노조위원장도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에 대해서만 높은 주주 배당률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B금융그룹 재무재표상 주주 보통주 배당률은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은행이 46.92%로, 전북은행(12.82%), JB우리캐피탈(9.88%)보다 4배가



전라북도 정읍 JB금융 통합 연수원 '아우름캠퍼스' 전경. (JB금융 제공)

량 높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JB금융지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주주 배당률은 사실상 JB금융지주가 결정하게 됐다.

박만 노조위원장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JB금융그룹은 광주은행을 현금 캐쉬카우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5763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현금 배당을 가져가 광주은행의 적극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등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산센터의 전주 통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광주은행의 역할이 JB금융지주 내에서 가장 큰데도, 광주가 아닌, 전주로 옮기면서 점차 광주·전남 지역사회 재투자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연결기준 JB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6039억원으로 광주은행(2397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에 달했다. 지주회사인 JB금융지주(1944억원·32.2%)보다 많고, 다른 자회사인 전북은행(1726억원·28.6%), JB우리캐피탈

(1910억원·31.6%)보다도 많다.

광주은행 노조 측은 JB금융그룹 통합 연수원인 '아우름캠퍼스' 역시 역외유출의 사례로 들었다.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각각 400억원가량, JB우리캐피탈이 200억원가량의 자금을 들여 지난해 전북 정읍에 아우름캠퍼스의 문을 열었다. 아우름캠퍼스의 위치가 정읍으로 결정되면서 광주은행이 지난 2017년 대규모 연수원을 짓기 위해 매입했던 9000여㎡ 등의 땅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박 노조위원장은 "연수원을 전북 정읍에 짓게 되면서 광주은행은 일종의 투자를 하고도, 사실상 전북 소재 기관 및 학교 등의 컨퍼런스가 열리는 등 광주·전남 기관 및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은행은 연수원 운영비로 매월 1억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분개했다.

한편 광주·전북은행 전산센터 전북지역 통합 구축에 반해,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6일 광주은행 전산센터의 전북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2주만에 노조와 비노조원을 포함해 전국 각 지점 직원의 90%가량인 16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

최상목 권한대행 결정 주목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3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 대통령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

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권을 인용했지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따라서 향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 후보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

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최 대행)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현재로 하여금 마 후보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부작위는 위법하나,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까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박들선 모델



안영성 조리명장



김봉중 교수



안톤 솔츠



정지아 작가

고수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3월 18일 개강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3월 18일에 개강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3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5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3월 10일까지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光州日報社

국가기록원 분원 유치 5·18 기록 보관해야 ▶6면

KIA 위즈덤, 한국 야구 매운맛 경험 ▶18면

3·1절 대체휴일 - 3월 3일 신문 쉽니다
kwangju.co.kr 서비스는 계속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FIRST CARE
ACTIVATING SERUM VI
SERUM ACTIVATEUR VI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